

연구논문

‘투기부인’이라는 허수아비 정치: 두 편의 사적 다큐멘터리 분석을 중심으로*

김주희**

〈국문초록〉

한국에서 탐욕스럽고 혐오스러운 투기꾼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복부인’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기를 여성의 비규범적 경제활동으로 병폐화하면서 투자의 남성중심적 규범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 감독에 의해 제작된 두 편의 사적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Family in the Bubble*)〉와 〈모래(*My Father's House*)〉를 분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되기’ 프로젝트가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 투자 실천과 불가분이었음을 드러냈다. 사실상 ‘복부인’은 중산층 가족 내 여성에게 권장된 성역할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투기부인’은 금융시장을 합리화하고자 한 정부와 자본이 세운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본 연구는 두 가족과 여성 감독들의 삶을 전경화하면서 “사회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 고민을 촉구하였다.

주제어: 경제와 여성, 부동산 투기, 복부인, 가계의 금융화, 사적 다큐멘터리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2017S1A6A3A01079727). 본 저자는 논문의 초기 아이디어를 2018년도 한국문화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to.maretina@gmail.com)

© 201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2000년대 들어 ‘재테크’ 담론이 부상하는 등 대중들의 투자(investment) 실천은 과거와 비교해서 활성화되고 일상화되었지만, 동시에 투기(speculation) 활동을 엄격하게 경계하는 담론 역시 확산되고 있다. ‘복부인’으로 대표되는 ‘투기부인’을 혐오하는 대중심리와 그 이면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는 본 연구는 먼저 최근 한국 사회를 달군 두 건의 ‘투기 스캔들’을 통해 투자 혹은 투기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3월 29일, 전직 기자 출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부터 청와대 관사에 살게 되면서 기존 집의 전세 계약금 4억 8천만 원을 해지하고 은행으로부터 10억 208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흑석동의 25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거듭 내놓은 상황에서 김 대변인의 ‘과도한 대출’을 통한 건물 매입은 청와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논란이 일자 김 대변인은 28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누리고 되파는 (투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한겨레』, 2019.3.28).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하였다. 그는 청와대를 떠나면서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말했다(『한겨레』, 2019.3.29).

그 직후인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 재산이 논란이 되었다. 이 후보자 부부 재산 42억

6000만 원 중 주식이 35억 4887만 원으로 83%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6억 6589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변호사 배우자는 28억 8297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과다한 주식’ 보유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그는 “(주식 거래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요소는 없다고 들었다”고 강조하며 “모든 거래는 남편이 했다”고 답변했다(『한겨레』, 2019.4.10). 4월 19일 문 대통령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고 이후 이 재판관과 그의 배우자는 주식 전부를 매각했다고 한다(『중앙일보』, 2019.4.25).

이 두 사례에 불법적 요인이 개입해 있었는지는 추후 경찰과 검찰에 의해 조사될 예정이다. 다만 위 스캔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투기 활동이 투자 활동과 구분되어 엄격하게 경계시 되고 있으며, 이 둘을 구분하는 데 ‘과도함’이라는 대중정서가 작동한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위 사례는 고위 공무원의 금융투자 활동이 ‘투기’ 활동이기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과도한 투자’는 보통 ‘투기’라고 간주되며, 이러한 투기라는 표지에는 법적 단죄보다는 도덕적 단죄의 의도가 숨어 있다. 하지만 투기를 투자와 구분해내려는 강력한 사회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확천금을 향한 욕망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률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어렵다. 김 전 대변인 역시 자신의 건물 구입 사례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투기를 끊임없이 구분하려는 대중담론과 금융지식은 어디에서 연원하는 것일까. 나아가 김 전 대변인이 부동산 문제를 ‘아내 탓’으로, 이 헌법재판관이 주식 문제를 ‘남편 탓’으로 돌린 것은 대중적 투자담론의 쟁점 더 정치학과 관련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처럼 본고는 투기를 투자와 구분하고자 하는 대중의 강력한 열망과 동시에 작동하는 ‘과도함’이라는 허술한 기준은 사실상 개인에 대한 편견

을 포함하는 대중의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역설적인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과도한 투자는 투기’라는 사회적 판단의 기준에는 절대적 투자액만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 위치, 성 역할 등 상대적이고 규범적인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고, 여기에는 개인의 본성과 역할에 대한 편견 역시 포함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본고는 과학적 투자와 병리적 투기를 구분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도 속에서 투기꾼이 ‘투기부인’과 같은 여성의 모습으로 인격화되어 혐오의 대상이 된 궤적을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투기부인’의 실상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떤 배경 속에서 담론에 등장하는지, 대중들의 투자 실천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온 현실에서도 과연 이들은 동일한 형상으로 상상되고 담론장에 소환되는지 의문이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여성 감독이 연출한 사적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와 〈모래〉를 분석하면서 부동산 투자가 현실의 가정생활 안에서 추동되거나 좌절되어온 역사적 시간성을 검토할 것이다.

마민지 감독의 2017년 작 〈버블 패밀리(Family in the Bubble)〉와 강유가람 감독의 2011년 작 〈모래(My Father's House)〉는 모두 여성 감독이 강남에 거주하는 자신 가족들의 삶을 부동산 경제라는 렌즈를 통해 기록한 사적 다큐멘터리이다.¹⁾ 이들은 각각 1980년대와 2000년대 강남에서

1) 독립 다큐멘터리는 “역사 기억하기 혹은 기록하기의 관점에서 극 영화와는 다른 중요한 성찰의 지점”을 제공한다(김영옥, 2012). 그 중에서도 사적 다큐멘터리란 “접근하기 용이한 감독 주변과 가족을 대상으로 “감독-나”가 바라본 그들의 이야기를 주관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담이”내는 다큐멘터리를 지칭한다(이승민, 2013: 81). 국내에서 사적 다큐멘터리는 주로 2000년대 이후 여성 감독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큐멘터리의 공적 성격, 정치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이어졌다(권진경, 2018; 김숙현·이효민, 2018; 형태조, 2010; 황미요조, 2014). 그러므로 사적 다큐멘터리는 그저 사소한 경험의 세계에 머문 기록이 아니라 사적 세계를 낯설게 응시함으로써 권력과 정치가 기입된 공적 질서에 질문을 던지는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1980년대 사회변혁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독립 다큐멘터리의 거대 서사를 지나 (혹은 넘어서), 2000년대 이후 주로 여성 감독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일상에 대해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공적인 것의 의미를 재탐구하는, 시기적, 내용적, 방법론적 전환과 함께 등장한 다큐멘터리 장르로 정의할 수 있다.

‘정상가족’의 딸로 성장한 경험을 부동산 투기 바람과 이를 둘러싼 가족의 욕망, 투자 실천과 함께 드러내면서 낯설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젠더 관점으로 독해되어야 하는 영화이다. 특히 사적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특징상, 가족 구성원들의 부동산 투자와 연동하는 가족 규범, 성역할 규범에 대한 실천과 위반 서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계 담론과 젠더 규범성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본 연구가 직접 인용하고 분석하기 적절하다. 앞서 인용한 대중의 심판대에 오른 두 고위 공직자가 부동산은 ‘부인 탭’, 주식은 ‘남편 탭’으로 돌린 연유는 어쩌면 그것이 가정 내 젠더 규범과 관련해 대중을 설득하기에 순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일상의 공간과 실천, 여기에 개입하는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편견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투자활동에 대한 병리화 담론과 논쟁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투기부인’의 발명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전제에서 둘을 구분하는 것은 대중담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으로 투자를 권장하면서 동시에 투기를 규범적으로 경계하는 것이 개인의 투자 실천을 어떻게 재강화하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려는 시도를 담론 수준에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투기를 ‘투기부인’으로 대표되는 여성 인물형의 비규범적 경제활동으로 병폐화하면서 투자의 규범성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내포한 정치학을 살펴본다.

1) 투자를 투기와 구별하려는 과학적 시도

투자와 투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면,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이고, 투기는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이다(네이버, 2019). 경제활동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이익’인가 아니면 ‘차익’인가라는 부분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사전적 지표이지만, 앞서 소개한 이 헌법재판관의 사례처럼 주권, 채권의 매매 역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활동임을 상기할 때 사실상 그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투자와 구분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활동이 과학적인지 혹은 생산적인지 질문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의 스승이자 증권투자 이론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벤자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오랜 시간 널리 참조되어온 책이다(그레이엄, 2016). 이 책의 첫 장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 현명한 투자자가 기대하는 성과”인데, 그는 이 장에서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기”라고 밝히고 있다(그레이엄, 2016: 44). 그에 따르면 투자가 투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 다시 말해 과학적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한 증권사 팀장 역시 “카지노에서 배팅하듯이 단지 운에 맡기는 식이면 투기이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 확률적으로 이익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투자다”라고 설명했다(『동아일보』, 2011.9.18). 하지만 우리는 시장이 붕괴하였다거나 시장이 상승했다는 분석과 판단의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질문해볼 수 있다. 이들은 사실상 시장 등락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권위가 직업 투자자들인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투자 촉진을 추동하는 이들이다. 경제사회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19세기 이래 투자자

를 금융투자의 숨겨진 객관적 법칙들을 발견하는 과학자로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통해 파생상품 시장과 금융경제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투자의 과학이 이전 시기 투자를 도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Preda, 2005). 그러므로 우리는 한 금융정치학자가 “근대 금융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표상은 대안적 가능성의 조건을 배제하며 그 자체로 권력 실행의 중심에 있다”(de Goede, 2005)고 언급한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자를 합리적 경제활동으로 설득해야 하는 목표를 위해 투자를 투기와 구분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한 칼럼에서 “투자가 도를 넘어 투기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전적으로 투자는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활동을 일컫”지만 “투기는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뜻한다”고 구분하였다(『이투데이』, 2017.10.11). 하지만 이처럼 생산활동 여부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요소라고 할 때 남는 것은, 무엇을 생산활동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많은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 연구자들은 자본주의적 축적 구조의 급격한 변동 속에서 자본주의적 가치화가 단순히 ‘생산적’이거나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단히 분류되기 어려운, 노동 과정의 다양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과 같은 여전한 성별 노동 분업 시스템이 이러한 생산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Adkin, 2009; Fortunati, 2007).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젠더 규범성과 같은 문화적 의미망을 경유하면서 사실상의 차이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앞서 이철환은 투자가 “도를 넘어” 투기로 변한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때의 ‘도(度)’가 지적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문화사회적 의미망일 것이다. 이에 개별 경제 행위를 투자인가 투기인가 판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회의 ‘도’, 규범 요인이 결합해 투자와 투기

의 구분이 만들어지고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적 측면이 물질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성된 영역이자 일련의 인간 활동의 관행을 통해 재구성되는 영역이라는 문화경제학(cultural economy)이 지닌 문제의식과 맞닿는다(Aitken, 2007: 38). 같은 맥락에서 페미니스트 문화연구자 피오나 알론(Fiona Allon)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위기가 일반적으로 금융적 과잉, 투기, 사기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왔다면서, 이러한 논의들은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개인적인 병리학과 사적인 도덕성의 질문으로 전환해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적 도덕성을 판별 기준으로 삼아 개인을 병리화하려는 시도를 통해 과잉, 투기, 사기, “비이성적 과열”(윌러, 2014) 상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의 투기와 차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약탈적인 금융 시장의 합리성을 주장하고 성장을 모색해 온 금융 지배의 이데올로기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투자와 투기, 규범적인 것과 비규범적인 것을 판별하려는 시도를 통해 투자는 규범적 경제활동으로 옹호되며 젠더 규범성과 같은 기존의 규범 체계를 재강화한다(Allon, 2010).

특히 경제적 규범성은 성별에 따른 이중적 태도를 통해 구축되었다.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합리성, 이성언어는 언제나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이와 대립하는 비합리성, 비이성은 여성적인 것으로 할당되어왔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들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여성들의 활동은 경제로 환원될 수 없는 본성의 문제로 분류되었다. 폴라 잉글랜드(Paula England)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인 합리적인 경제인(rationally economic man)이란 발생론적으로 남성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남성화된 자아(masculinized selfhood)를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분리/관계의 이분법(dualism)은 성별화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계적인 것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성성, 여성적인 것, 여성의 경험을 평가절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Humphries ed., 1995; 강이수·신경아, 2001: 14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경제적 상상력 속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본성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취급되면서 공적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동하게 되었다. 때로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통해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추방되었고, 여성의 퇴행과 의존에 대한 정당성이 고안되었다.

이와 동시에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적합한 투자 활동이 무엇인지,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남성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관찰하며 분석하려는 시도가 최근 관찰되고 있다. 부동산은 여자의 투자 활동, 주식은 남자의 투자 활동이라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활동을 남성들에게 적합한 활동으로 옹호하는 견해와는 다른 정치학을 드러낸 것일까. 남성과 여성이 뇌과학적으로 차이를 지닌 존재라고 전제한 한 소비자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남성은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이준영·정지영, 2011). 이들은 여성이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로 여성의 섬세함, 안정성향의 기질과 함께 결정적인 순발력이 남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이즘마들의 수다를 통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정보교환의 힘” 역시 이러한 차이의 변수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투자 활동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신문기사 제목만 훑어보아도 “주식투자 수익률 여성>남성”, “여자가 남자보다 주식 고수”, “주식투자자 31%가 서울 사람…남성이 여성보다 많아”, “25~35세 투자성향 성별따라 달라…남자는 주식, 여자는 예적금 선호”, “얼굴이 넓은 남성은 주식투자 수익률이 나쁘다”와 같이 서로 제각각의 특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여자, 주식은 남자라는 조사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이러한 원인과 효과의 젠더 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투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기존의 성역할 통념을 재생산하고 남성과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본성으로 환원하려는 탈정치적 경향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이는 투기를 병리화하려는 시도와 만나 손쉽게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규범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투자를 투기와 구별하려는 과학적 시도는 결국 남성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경제인들의 ‘도’, 규범성을 구축하여 투자를 옹호하고 촉진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여성들에게 적합한 투자 활동을 판별하려는 최근의 시도를 통해 투자는 대중적으로 촉진될지라도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그것은 언제나 남성들의 투자 활동과는 구별되는 열등한 활동으로 의미화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본고는 부동산 투자를 실제 여성들의 투자 활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여성들의 투자 활동이 된 경로는 무엇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담론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는 여성들의 공적 경제활동이 본성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의미화되는 대중 담론의 지평 속에서 투자 혹은 투기를 둘러싼 젠더 정치를 분석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2) 부동산 ‘투기’와 병폐의 여성화

자본주의 체제는 내재적 자기모순을 젠더화된 공사분리라는 차별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극복해왔다. 경제위기 시 여성을 타깃으로 한 구조조정, 혹은 비정규직의 여성화가 대표적이다. 조순경은 IMF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배제 현상이 구조조정을 옹호하는 자들의 논리처럼 실제 시장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보다는, 남성 위주의 온정주의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경제위기 시 국가는 시장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족이라는 비시장영역에서 해결해주

기를 요구하지만, 위기 이후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게 되었다(조순경, 1998). 이처럼 자본주의의 위기는 체제 내적인 것이지만 국가는 여성을 시장영역에서 추방하는 성차별적 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제스처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위기 시 여성들은 공적 경제 영역에서 추방되었음에도 이들이 가정 안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쥔 존재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과잉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경제위기 이후 새롭게 고안된 금융시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박혜경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주부 주체화 담론에 의해 주부는 기존의 억압된 가사노동자이거나 경제적인 의존자의 이미지를 벗고 가정의 경영지도자로 재현되었음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의 주된 생산자는 경영 및 금융 컨설턴트로, 주부들은 재테크와 시테크 등 온갖 관리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재현된다. 주부들에게 투자/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상품시장에 판매될 정도의 가사노동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경영담론은 주부를 가정의 경영자로 주체화시킴으로써 여성과 가족을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에 종속시킨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박혜경, 2010). 이에 조순경과 박혜경의 논의를 결합해보자면, 한국의 여성(주부)들은 경제위기 이후 시장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방되는 동시에 투자(투기)자, 혹은 다양한 금융상품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명령에 직면하게 되었다.

알론(Allon, 2014) 역시 “금융의 여성화(feminisation of finance)”라는 개념을 통해 최근의 전지구적 금융위기에서 글로벌 금융을 운영하는 데 젠더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대표적인데 금융위기 이후 여성들에게 금융상품과 소비자 신용 사용을 증대할 것이 요청되면서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활용되지 않은 자원”으로 취급되었다.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 내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복지의 위험과 책임을 흡수하고, 위기 시기에 정기적으로 충돌 흡수 장치를 제공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금융화된 소유자 사회에서 여성을 통합시키려는 다양한 전략에서 특정한 재무 관행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는 싱글맘으로 대표되는 빈곤 여성들의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월마트까지 이어진 금융민주화 국면에서 쇼핑, 비즈니스와 बैं킹, 금융 서비스 사이 경계는 상당히 모호해졌다. 알론은 이제 부엌 싱크대까지 더 많은 투기적인 금융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투기는 금융위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가정 내 여성들의 역할로 분류되었음을 지적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투기는 투자와 사실상 구분이 어려운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제 재편 이후 금융적 팽창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많은 종류의 투자 활동이 투기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금융 투기를 병폐화하면서 이를 감별해내고자 하는 도덕적 열망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 시도의 이면에 어떤 의도가 놓여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의 투자 활동은 자본주의 여명기 이래 지속되어온 여성혐오적 판단 기준과 겹쳐지면서 경멸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미국 최초의 여성 투자자로 알려진 헤티 그린(Hetty Green)은 자신이 물려받은 유산을 50여 년간 100배 이상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여자의 몸에 남자의 뇌를 가졌다”라는 평가와 함께 악명 높은 “월스트리트 마녀”라 불렸다. 본고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듯이, 금융투자는 남성-가장-합리적 경제인의 규범적 재무활동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여성들의 그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부적절성은 여성혐오적 정동과 결합하면서 여성을 경제적 장에서 배제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드 괴데(de Goede, 2000)는 “신용부인 정복하기(Mastering Lady Credit)”라는 제목의 글에서 금융의 논리가 초월적 합리성의 영역에 있다는 가정, 신용의 역사적 개념 등이 젠더 범주와 관련이 있음을 드러냈다. 나아가

18세기 금융 논쟁의 중요한 참가자였던 작가 다니엘 디포(Daniel Defoe)가 “여성들의 변덕”으로 신용을 상상하며 쓴 “신용부인(Lady Credit)”이라는 글을 분석하면서 신뢰성의 기저에 있는 평판과 권위는 유일한 자율적 주체인 신사에게만 귀속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용부인”은 디포가 만든 말은 아니고, “변덕스럽고 고집스럽지만 설득할 수 있는 여성”으로 신용을 표현한 것은 새로운 신용 구조의 옹호자와 반대자 모두에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디포의 글에 따르면 “신용부인”이 필요 없는 것처럼 구는 남성만이 오직 그녀를 소유하고 정복할 수 있다. 디포는 금융인(financial man)이 먹고, 마시고, 호화로운 술과 놀이 때문에 사치해서 빚에 깊이 빠지는 것을 비난하면서, 절제하고 성적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신용부인”을 정복하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신사의 자기 통제 테크놀로지의 예로 18세기 잉글랜드에서 강화된 복식 부기를 들고 있다. 동시에 디포는 주식투기꾼(stockjobber)라고 불리는 런던 시티의 브로커나 중간상을 “신용부인의 강간범”이라고 묘사한다. 그녀를 매춘부로 만드는 이러한 성적 폭력을 통해 그녀는 순수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드 괴테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무대에서 남성성의 결핍으로 묘사되면서, 일관성 있는 완전체로서의 국제적 신용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한다. 시스템의 통합이 재차 확인될 필요가 있는 금융위기 시기에 “신용부인”에 대한 담론적 긴장이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 결과, 위험과 유혹이라는 투자 요인은 여성화되어 경계되고 동시에 여성들의 경제적 실천은 태생적으로 합리적일 수 없는 활동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금융에 있어 자율적 행위자인 호모 크레디투스(creditus)는 단지 여성만 배제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타자들을 배제시킴으로 구축되었음은 “신용부인 정복하기”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식민지를 경험한 사회에서 남성들은

서구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에 대한 신사적 태도를 습득할 기회가 없었다. 게다가 유교적 부권주의의 전통을 활용하면서 국가 주도 하의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한국 사회는 여성적 노동을 “보상을 바라지 않는 헌신”의 개념으로 규정한 채 노동의 성별 분업 체제를 급속하게 이루어냈다(김현미, 2000). 가족에의 헌신이라는 미명 아래 여성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내몰았던 한국 사회에서 ‘숙녀를 다루듯 신용을 통제하라’는 금융 교육은 가당치 않을 것이다. 동시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상찬되기는커녕 이들의 투자 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은 병리화되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발전주의 시대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의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면서 강남으로 대표되는 도시 개발을 추진했다(장상환, 2004). 이처럼 개별적 투기 열풍을 넘어 근대화 프로젝트 시기 부동산 정책은 부와 선이 결합하는 근대적 중산층 가족 만들기의 목표 아래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²⁾

본격적으로 1970년대 말 정부에 의한 가족 정책의 일환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대의 병폐는 철저하게 ‘투기부인’과 같은 여성의 모습으로 인격화되었다. 1970년대 말 등장한 ‘복부인’이라는 형상이 대표적이다. 강남 개발과 관련된 건설사의 이권 다툼, 뇌물 수수, 각종 분양 특혜 문제 등 각종 비리가 난무했지만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부도덕함을 가리고 투자 시장을 옹호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는 여성혐오였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려는 경제적 시도, 여성은 경제적 장에 부적절하다는 규범성에 대한 인식, 부동산 투기를 중산층 가족 형성의 도구로 만들어온 경기부양책, 부동산이 주식에 비해 용례상 투기와 종종 연관되어온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마

2) 강준만은 1977년 정부에서 발표된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에 ‘불임시술자 우선 제도’가 포함되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주택공사의 반포 제2·3지구 아파트 신청 접수 때엔 보건소와 시술 병원이 때 아닌 시술 확인서 요청 러시로 바빠졌다고 한다(강준만, 2006: 65-66).

침내 여성의 모습으로 인격화되었다.³⁾ 서구 사회에서는 “신용부인 정복하기”를 통해 금융적 실천의 성별화된 규범성이 정비되었다면 한국에서는 ‘투기부인’이라는 혐오스러운 타자를 발명하고 그들에 대한 혐오를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면서 금융시장을 합리화하고 남성-금융투자자들의 자기에의 테크놀로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3. ‘투기부인’의 두 형상, 1980년대와 2000년대의 반복

이 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두 여성 감독들의 사적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 사회 개인과 가족의 부동산 투자와 소유 문제를 경제 분석을 넘어서는 문화경제적 사건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과 가계의 투자를 규범적인 것으로 옹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혐오스러운 타자로 내세워진 ‘투기부인’의 정치학을 분석하고, 이들의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유의미한 사건을 따라갈 것이다.

1) ‘버블’과 ‘모래’, ‘현재 없음’의 정치학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는 서울의 빌딩 숲과 아파트촌,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마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비추며 시작한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곳은 오늘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 도시의 변화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끊임없이 바꾸어 놓았다”는 감독의

3) 일반적으로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와 종종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거품 발생과 붕괴 가능성이 크고 거품 붕괴 시 주식에 비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은 ‘투기’로 주식은 ‘투자’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된다(『이투데이』, 2017.6.29). 물론 본고는 투기를 투자와 구별하려는 과학적 시도 그 자체보다 투기가 언제, 무엇과 결합하여 경계되는지 분석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화학 공장의 노동자였던 감독의 아버지와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는 1970년대 중반 울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다.⁴⁾ 어머니는 울산에서 100만 원을 주고 작은 아파트를 샀는데 2년 만에 300만 원을 받고 집을 되파는 경험을 하셨다.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새 아파트를 계약했고 이 아파트를 4배 더 받고 팔면서 부모님은 울산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서울로 향했다. 1980년대 서울은 주택 부족 현상으로 ‘집장사’라 불리는 소규모 건설업이 유행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가족은 경제적 황금기를 보내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다음 해 부모님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투자해 부암동에 고급 빌라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규제 강화로 가족은 빗더미에 앉게 되었다. 가족들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단지 맞은편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부모님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선가 돈이 들어올 것이라 말하며 거리를 배회하고, 어머니는 부동산 텔레마케터로 일하면서 15년째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낡고 초라한 어머니 방에는 “계약”이라는 글씨가 붙어있고 오래된 책장엔 부동산 관련 책들이 꽂혀 있다.

다큐멘터리 〈모래〉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1980년대 초반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감독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사진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산다. 난 오래전부터 부모님께 지긋지긋한 이 집을 팔아버리자고 했다”고 말하는 감독의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이 영화에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부재함으로써 존재했다. 중동에서, 지방 건설현장에서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낸 아버지가 없었던 시간을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매진하며, 밤에는 남대문 새벽 시장에서 옷을 팔며 살았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아버지가 퇴직하

4) 한국사회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울산지역 내 울산여성들의 삶을 살펴본 연구로 박혜영·박금식(2015)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게 되면서 가족은 퇴직금으로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샀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팔던 옷의 의류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의류 공장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아버지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었다. 빚은 점점 늘어났고 한 달에 은행에 내는 이자만 500만 원이 되자 감독은 이 집을 팔고 빚을 갚는 것이 어떤지 아버지에게 묻는다. 하지만 부모님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때문에 쉽게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지은 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낡은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영화의 제목에 버블경제의 ‘버블’, 모래성의 ‘모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듯이 두 여성 감독들은 각각의 영화에서 서울의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산층 가족의 일상과 위태로움을 다루고 있다. 〈모래〉를 만든 강유가람 감독은 1979년생으로 마흔 살이고, 〈버블 패밀리〉를 만든 마민지 감독은 1989년생으로 서른 살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주목하는 시기는 〈버블 패밀리〉가 더 앞선다. 〈버블 패밀리〉는 경제 호황기였던 감독의 유년기, 1980년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모래〉는 아파트값의 상승기였던 감독의 성인기, 2000년대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각 가족이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하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감독의 내레이션과 영상을 통해 두 다큐멘터리는 현재 가족의 삶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사실 이들의 현재는 과거의 흔적이거나 미래의 씨앗으로 의미가 있다. 두 영화는 모두 현실의 ‘누추함’을 드러내길 주저하지 않는다.

〈버블 패밀리〉의 부모님은 보일러가 고장나 온수가 안 나오는, 하지만 그에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자개장과 덩치 큰 고가구가 놓인 강남의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다. 이 자개장과 고가구는 어머니가 찍은 홈비디오 영상 속 낡은 아파트에서나 비로소 적절하게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은 강남에 살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내레이션이 전하듯, 현재의 삶은 과거를 연장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고집”으로 이어지고 있다. 〈모래〉의 가족은 복도의 타일과 페인트가 모두 부식되고 집안에 개미가 줄지어 기어

다니는 강남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 담보대출로 빚만 잔뜩이
고 남아버린 아파트를 떠나자고 감독이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시세
가 10억 5천인데 아빠는 수리를 해놨잖아”라고 답변한다. 이 가족의 현재
의 삶은 집수리를 해놨으니 당분간은 견뎌야 하는, 미래의 급상승이 기대
되는 10억 5천이라는 ‘시세’로 존재하고 있다. 이에 관객들은 감독이 현실
의 누추함을 응시하는 이유와 이 가족들이 그것을 견디는 배경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 사적 다큐멘터리의 정치학과 만나는 부분일
것이다. 두 가족에게 부동산은 현재 갖지 못한 안락함을 기대하도록 만드
는 유일한 매개물이다. 부동산 투기라는 이슈가 단일한 모습일 리 없음에
도 사회도덕의 문제로 끊임없이 간단히 다루어진 역사에 대항하여 두 감
독은 영화를 통해 이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의 일상적 욕망과 행위성을 드
러내고 있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는 단일한 담론이 간과한
역사적 시간성의 변화를 변별해내고 있다. 두 감독의 가족사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교차 읽기가 가능하다. 〈버블 패밀리〉의 부
모님은 1970~80년대 부동산 시세 차익을 통해 부를 달성했지만 국가의 건
설업 규제와 IMF 금융위기로 인해 큰 경제적 시련을 겪었다. 이 가족은
1980년대 강남에 모래탑을 쌓으며 살아갔고 그 모래탑이 무너졌음에도 부
모님은 현재까지도 “일 년에 10억 버는 건 쉬웠던” 어제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여전히 강남에서,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가족들은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지만 오직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모래〉의 가족들은 아버
지의 퇴직금으로 구입한 은마아파트와 함께 2000년대의 버블을 파먹으며
살아간다. 언젠가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 년에 6천만 원
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은행 이자를 감당하면서 이들 역시 강남에서, 언
젠가 다가올 미래를 살고 있다. 두 감독의 집요한 시선에 의한 것이겠지

만, 두 가족은 ‘부동산 투기’가 의미하는 ‘현재 없음’이라는 역설을 통해 가족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두 영화를 병치시키니 모래와 버블이, 1980년대와 2000년대가 반복되고 있다.

2) ‘복부인’과 아파트 부녀회, 여성혐오의 정치학

영화에 등장하는 두 가족의 ‘누추한 현재’는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가족 되기’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거품과 이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재생산되는 부동산 투기라는 병폐는 종종 여성의 모습으로 인격화되어 경계된다. 이러한 여성화된 투기적 병폐의 원형적 인물형(original figure)은 ‘복부인’이다. ‘복부인’은 실제로도 ‘투기부인’ 혹은 (빨간 바지를 즐겨 입었다고) ‘빨간 바지’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은 보통 강남에 아파트가 건설되던 시기인 1970년대 후반 등장해서 1980년대 경제 호황기 수익성 있는 부동산 시장을 누빈 가정부인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땅 투기, 아파트 투기 등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며 빠르게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다음은 1979년 한 기독교 계열 잡지에 실린 “복부인”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의 일부이다.

그때 영미 엄마는 “애… 공연한 소리들 말어. 여자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아껴 쓰고 살림할 때가 행복한 거야. 나야 여자니? 남자지. 그리고 투기업을 내가 하고 있지만 아무나 하는 것 아냐. … 대답하고 머리는 전자계산기 같이 빨리 돌고 그리고 체념이 빠르고 담도 커야 돼. 그리고 돈 놓고 돈 먹는 장사니까 적어도 제 돈은 좀 있어야 되고 … 그리고 복덕방 친구들이 남자니까 … 그들하고 어울리려면 술도 좀 해야 되고 말 주변도 있어야하고! 보통으로 되는 게 아냐! 너희들은 돈을 벌었다는 자체만 부러워하지만, 애들아 세상에 쉬운 게 있는 줄 아냐? 강여사 너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얄전하고 말주변도 없고 소심해서는 안 돼(박기원, 1979: 126).”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부인’이지만 부인답지 못한 여성들로 묘사된다. 해티 그린을 향해 “여자의 몸에 남자의 뇌를 가졌다”고 평가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남자와 같은 판단력이 요구되고 남자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복부인’들은 가정부인으로서의 성역할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적이고 혐오스러운 존재들로 취급된다. 소설 속 영미 엄마는 남편으로부터 “어편네가 돈을 벌어온다고 길을 싸돌아다니는 동안 집안은 축밭이 됐어. 식모에게만 맡겨진 살림! 나나 애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몇 번이나 집구석에 있었어?”라는 원망을 듣는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과 다룬 영미 엄마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들이 ‘여자로서 행복하지 못한 비극적인 삶을 산다’는 게 ‘복부인’ 담론의 핵심이다.

반동적 담론으로 존재하는 ‘복부인’을 실체로써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이러한 담론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의 어머니를 아마도 ‘복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영화에는 당시 인기 그룹 소방차가 ‘복부인’을 회화하면서 개사해 부른 노래가 푸티지 영상으로 삽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장사’로 가장 많은 돈을 벌던 시절 가장 주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는 강남 일대의 땅값이 200배 가까이 상승하던 시절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한 도면을 스스로 편의에 맞게 수정할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며 “건축 사업”에 뛰어들었던 분이다. 어머니는 중산층 되기의 욕망을 가진 다른 가족들이 거주할 집을 지었고 이러한 건설 사업을 통해 자신도 중산층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철저하게 중산층 가정부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당시 어머니가 찍은 감독 유년기의 홈비디오를 보면 어머니는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젊은 아버지를 가리키며 “민지야, 아빠 가신대. 인사해야지”라고 상냥하게 말한다. 현재 아버지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투명스럽게 면박을 주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어머니는 직접 홈비디오로 감독인 딸의 초등학교 입학

식, 딸이 발레 레슨을 받는 모습, 딸의 학교 친구들을 자신이 가꾼 아파트에 초대해 성대하게 생일파티를 치르는 모습 등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가족의 황금기’는 어머니의 기억 저장소인 비디오카메라에 저장되어 있고 이 홈비디오는 IMF 시기인 1997년에서 멈춰있다. 결국, 부동산 투기 열풍에 동참하고 있는 여성들이야말로 가장 ‘여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인즉슨, 집안을 가꾸는 가정부인이라는 신화는 중산층 가정에서나 가능한 역할인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고자 했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가정부인됨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역설적으로 ‘여자로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상상되는 ‘복부인’이었다는 것이다. 감독은 “두 사람은 부부이기도 했지만 서로를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였다”라며 과거의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78년 초 부동산 경기가 일자 안방 아낙네들은 악어백을 흔들거리며 福婦人으로 변해 불로소득의 돈줄을 쫓으며 춤바람에 들떠 다녔다. 8.8 조치로 부동산 돈줄이 막히자 이번엔 골동품에 손대는 ‘골부인’으로, 고추배추밭을 찾는 ‘김치부인’으로 잘도 변신하더니 급기야는 돈줄이 막히자 이혼소동, 가정파탄으로 끝장을 내기도 했다(『경향신문』, 1980.2.15).

위의 신문기사에서처럼 혐오스러운 투기꾼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여성들의 투기를 향한 이러한 혐오적 시선은 여성들의 소비에 대한 혐오와 교차한다. 이때 소비는 어머니로서의 저축, 가족을 위한 모성적 소비가 아니라 ‘악어백’과 같은 자신만을 위한 사치스럽고 탐욕스러운 소비를 지칭하는 것이다. 노동 없이 달성하는 소득, 생산활동과 무관한 소비가 바로 ‘복부인’이라는 멸칭의 근거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증명하듯 이 시절 부동산 투기로 실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은 개발적 남성 공무원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발전주의 시대 목격되는 고위직 공무원

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취급될 뿐, ‘복부인’과 같은 대중적 혐오로 확산되지는 않았다.⁵⁾ 그러므로 ‘복부인’ 담론은 사회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 낙인찍으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성찰 자체를 가로막는 반동적 여성혐오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복부인’ 담론, ‘투기부인’ 담론은 한국 경제가 내재한 문제를 바로 볼 수 없도록 하는 ‘허수아비 세우기’인 것이다.

담론적 측면에서 1980년대 ‘복부인’이라는 형상은 2000년대 집값 담합을 주도하는 아파트 부녀회 모습으로 계승되었다.⁶⁾ ‘복부인’이라는 개인이 아파트 부녀회라는 집단과 교차되는 것은 2000년대에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아파트 고급화가 추진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아파트 부녀회는 치맛바람으로 대표되는 ‘8학군’을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부동산 버블 국면에 등장하여 집값 담합을 주도한 이기적인 여성들이라고 상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인들의 교육열이라는 이슈는 특정 시기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부양된 것이기도 하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는 강북 지역 개발억제 정책을 펼치면서까지 강남 개발 정책을 추

- 5) 강준만(2006: 66-69)은 1970년대 말 부상한 ‘복부인’ 담론이 같은 시기 ‘제비족’ 담론과 함께 부상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강남 개발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면 ‘복부인’과 딱딱 관계에 있는 남성 인물형은 사실상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공무원 남성들이다. 손정목은 1970년이 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군수 투기업자들이 대량으로 땅을 사 모으고 있었는데 “몇천 평 이상 되는 큰 덩어리 땅은 윤 국장 차지였고 몇백 평씩은 복부인들 차지”였다고 전한다(손정목, 2003: 156). 떠들썩했던 현대아파트 특혜 분양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특혜 분양을 받은 고급공무원, 장성, 언론인 등 259명의 특혜 분양자 명단이 1978년 7월 4일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 중엔 공직자 190명, 국회의원 6명, 언론인 34명, 법조인 7명, 예비역 장성 6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강준만, 2006: 70).
- 6) 다음에 인용하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파트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는 실제적이라기보다 아파트 가격 결정 심리와 관련된 문제임에도 집값 문제는 ‘아파트 부녀회’라는 혐오적 타자를 통해 재현되고 있다.

“정부는 (...) 집값 담합 행위가 알려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동창회나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나누는 담합 논의를 단속하기 쉽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담합이라는 건 실제 계약에서 공고하게 작동되긴 어렵다”며 “담합이 정말 이뤄지기 보다는 가격 결정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조선비즈』, 2018.9.16).”

진하였고 이때 강북의 명문고등학교의 강남 이전을 실시했다. 정부의 투자 고양 정책에 의해 탄생한 ‘복부인’들은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판결” 이후 주요 일간지들의 “대치동 띄우기”와 함께 학군을 사수하기 위해 ‘치맛바람’을 휘둘리는 이들로 전경화되었다(강준만, 2006: 185-191). 이들은 현재까지도 자녀들의 학군 관리, 사교육 정보교환을 하며 온라인 주민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지역 부동산을 견제하는 집값 담합을 통해 거주 주택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두 인물형들은 공통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부동산 투기에 집착하는 여성들을 표상한다.

〈모래〉의 어머니가 바로 자녀 교육에 열을 올리며 강남 거주를 고집하는, 아파트 부녀회 멤버로 상징화되는 인물일 것이다. 강유가람 감독은 “어떤 사교육 키드의 생애”라는 글에서 1989년 비록 전셋집이었지만 강남 8학군 아파트 단지로의 “입성”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서울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어머니의 기준은 첫째도 자식들 교육, 둘째도 교육이었다”고 전한다. 또한 “간간이 어머니는 재테크의 일환으로 땅을 사는 복부인 흉내를 내보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았다”고 기록한다(강유가람, 2015: 149-150). 영화에서 감독은 밤새워 일하며 과외비를 대는 어머니에게 언제나 미안하면서 부담감을 느꼈다고 기록한다. 또한 감독의 여동생도 “강남으로 이사 오자고 그런 것도 엄마고, 나 플루트를 시켜준 것도 엄마고 몸이 약하다고 유도도 시켜주고 (...)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 엄마처럼 학원비를 못 줬을 것 같아”라고 감독에게 고백한다. 1980년대 강남에 “입성”하고자 한 가족의 돌봄 담당자에게는 자녀 교육의 열정과 이를 통해 강남의 명성과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주부 역할이 주어졌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자 한 정부의 요구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중산층 가정주부로서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어머니는 그다지 재능이 없어 보이는 “복

부인 흉내”를 내 볼 뿐이었다.

〈버블 패밀리〉 가족이 과거 거주하던 잠실은 소위 ‘부녀회’로 불리는 ‘아파트 단지별 부인회’가 처음으로 생긴 곳이었다. 손정목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잠실 1~5단지를 건설하면서 지난날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없던 여러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1단지에 건설한 새마을회관, 5단지에 건설한 새마을 체육관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1976년 1단지에 건평 284평의 새마을회관이 준공되었고 이 회관에는 넓이 159평의 새마을작업장이 마련되어 전업주부 약 200명을 모아 봉제 작업 등으로 월 1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마을작업장에 붙어 어머니회관이 들어서 있었는데 이곳은 꽃꽂이 교실, 붓글씨 교실, 합창 모임 등 부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모임터였다고 한다. 이후 ‘새마을어머니회’라는 것이 각 단지마다 조직되면서 단지별 부인회가 탄생하였다고 기록된다(손정목, 2003: 130-131). 이처럼 강남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민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었고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가정부인들이 때로는 소일거리 노동을 통해 때로는 취미 활동을 통해 유대함으로써 중산층 되기의 열망은 상호학습되고 재생산되었다. 그러므로 아파트 부녀회는 부동산 투기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회사와 정부가 견인한 “단지화 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인석, 2013).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특징을 자산기반 복지로 규정하고 그것의 역사적 기원을 산업화 시기 국가의 저축동원과 조세갈등을 통해 설명한 김도균(2018)은 1980년대 중산층 육성대책으로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국민주택 기금이 도입되고 활용되었음에 주목한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을 통해 사회문제로 부상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 소유 중산층을 육성하면서 분배 이슈를 오로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는 문제로 축소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주식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함으로써 주식투자의 대중화를 꾀했다. 김도균은 이러한 중간계급 육성책이 정치적으로는 지배 엘리트에 반대하면서도 경제적 풍요와 이익을 위해서는 지배 엘리트를 지지하게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한다(김도균, 2018: 142-152). 그러므로 당시 정부에 의해 부동산은 물론 주식 투기가 옹호되고 중산층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포섭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를 분석한 권진경(2018: 31) 역시 영화에서 비중 있게 등장하는 1970~80년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아카이브 푸티지 영상에 주목하면서, 감독의 부모가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뜬 것은 그 당시 부동산 개발을 긍정적으로 다룬 뉴스, 광고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복부인’에서 아파트 부녀회로 이어지는 여성 투기자 인물형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견인하고자 한 ‘중산층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의 수단이자 결과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집을 소유한 가장과 그 부양가족으로 이루어진 ‘중산층 되기’를 갈망하는 개인들의 집합 욕망을 통해 정부는 강남 땅값을 상승시키고자 했고 부족한 복지비용을 가족에게 전가할 수 있었다. 〈모래〉에 등장하는 아버지 역시 비록 대출금이 절반인 집이지만 자가 소유자로서 “자신은 (4대강 등)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말하며 여전히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서구 개념사적으로 금융 경제 영역에서 위험하고 유혹적인 것들은 여성화되면서 그것을 통제하는 능력과 자제력은 남성, 신사들의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국에선 ‘복부인’과 아파트 부녀회라는 ‘투기부인’이라는 타자를 발명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하면서 남성 가장들이 성실한 땀으로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 신화가 천박한 여성들의 투기 물결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혐오 담론은 정부에 의한 ‘중산층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와 이에 편승하는 ‘중산층 가족 되기’ 과정에 이미 투기 열망이 고양되고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우리 사회의 투기

문제를 탐욕스러운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 병리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중산층 가족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인의 임무를 수행한 여성들을 병리적 인물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담론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를 재강화한다.

4. 외환위기라는 결절점, 현재적 곤궁의 딜레마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온 거센 신용경색, 실물경제 위축의 물결 속에서 〈버블 패밀리〉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1970년대 말 부동산 소유 기회를 제공받으며 중산층 계급에 진입한 한국 가족들은 대략 15년에서 20년의 기간 동안만 그 경제적 안락함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 외환위기의 여파로 퇴직하게 된 〈모래〉의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강남의 은파 아파트를 구입했다. 〈버블 패밀리〉의 가족들과 〈모래〉의 가족들은 언뜻 부동산 투기의 버블 속에서 유사한 삶의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족들의 삶의 양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시기적으로 〈버블 패밀리〉와 〈모래〉 사이에 외환위기라는 결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전 시대를 살던 삶의 방식에 비해 이후 시대의 삶이 ‘과열되었다’고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금융적 전환의 과정에서 일상의 공간과 실천을 아우르는 연결망과 그곳을 살아가는 금융 주체성에 대한 전반적 변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버블 패밀리〉의 가족들은 강남에 땅을 사들이고 집을 짓고 그것을 높은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때 집은 교환 가치를 가진 상품이며 가족들은 이렇게 발생한 차액을 저축하며 살아가는 주체들이다. 하

지만 <모래>의 가족들은 집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주체가 된다. 금융화 국면에서는 채무자 주체가 되는 것도 결국 투자자 주체가 되는 것이다. <모래>의 가족들이 매달 들어가는 높은 대출금 이자에도 불구하고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민주화와 같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출하면서 수익을 거두던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위험 부담이 적고 수익성이 있는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해야 했다. 이들은 가계대출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제 기업 금융에 비해 소비자 금융이 더 손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로써 담보대출 채권은 증권으로 변환되어 새로운 수익을 낚는 상품이 되었다. 다시 말해 다큐멘터리 <모래>에서 아버지의 사업 자금과 가족 생활비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대출금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때 발생한 대출 채권은, 미래에 상환될 권리가 재가공화되고 재상품화되어 증권으로 판매되는 과정을 거친다.

경제 지리학자 폴 랭리(Paul Langley)는 이와 같은 부동산담보부증권(Mortgage-Backed Securitisation, MBS)의 테크닉이 등장한 이후 팽창하는 주택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생산하고 확장하기 위해 이전 시대 교외 거주자들을 부동산 투자자로 만드는 전환이 일어났고, 이러한 부동산담보부증권 테크닉은 재무재표상 나타나지 않는 회계, 자산관리, 신용 등급 계산의 도구를 통해 구성되었다고 설명한다(Langley, 2006). 또한 한국 사회에서 외환 위기 이후 이러한 변화에 대해 김도균은 이전 시대 저축을 통해 이루어지던 복지를 부채가 대신하게 되었다고 분석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공공지출을 늘리지 않고서도 당장의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메워주는 손쉽고 편리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김도균, 2018: 213). 새로운 금융 테크놀로

지의 등장으로 2000년대 이후의 〈모래〉의 가족은 〈버블 패밀리〉 시대의 가족들과 달리 주택가격이 미래에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그러한 희망을 근거로 대출받은 생활비를 통해 강남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다. 경제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불안정 노동 인구의 확산으로 가족은 더는 임금소득만으로 생존할 수 없게 되었지만, 금융화된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투기 열풍을 병리화하는 동시에 부채를 제공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대출은 현재 1500조를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는 아파트 부녀회라는 실체는 사실상 이전 시대 단기 매매를 통한 개별적 이익을 얻는 가정부인 주체들의 집합과 달리 거주민 동맹을 통한 주택 담보 가치 관리의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모래〉에서 아버지는 재건축 추진 설명회에 참석한 후 그 어느 때보다 한껏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다. 이제 아파트 거주민들은 ‘이불을 널지 마세요’, ‘청국장을 끓여 먹지 마세요’라는 공고문을 붙이며 중산층 라이프스타일을 상호 통제하고 이를 금융 가치화한다. 이러한 시대 위험한 신용을 통제하는 것은 남성 신사의 임무가 아니라 지역 주민, 아파트 단지 거주민 공동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물론 노태우 정부 시절 국민주가 발행되었듯이 ‘국민-투자자 되기’의 실천들은 이전 시대부터 존재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금융 증권화의 테크닉은 일상생활을 저축과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투자의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재테크’ 열풍이 불어닥친 것도 이 무렵이다. 이제 개인과 가족의 일상생활은 현명하게 투자하고, 현명하게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를 저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Martin, 2002).

이처럼 필요한 만큼 신용을 제공할 테니 주택을 마련하라는 정부 정책, 주택을 소유하면서 중산층이 되고자 한 시민들의 열망이 만나 현재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중산층이 되지 못한 자들과의 양극화는 심화되

고 각 가정에서는 가계부채를 감당하느라 사회재생산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서울은 10명 중 4.9명만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입니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 SHIFT의 광고 문구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이 문장이 언론에 등장하곤 하지만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집을 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점점 고급화되는 도시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은 번두리로 내몰린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합법적 강제철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울의 어느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재개발 정책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집을 갖지 못한 이들은 저렴한 주거 공간을 찾아 스며들어 간다. 청년들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지옥고”를 떠돌고 있다는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1년 6개월 사이 15개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은 안타깝게도 당장에는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50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통해 발전을 견인한 결과, 그리고 경제체제의 금융적 전환 이후 양극화된 삶의 곤궁함이라는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속 두 인물은 다름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있는 두 여성 감독들이다. 부동산 투기의 역사적 궤적 속에서 마침내 마주하게 된 ‘현재 없음’은 감독 자신의 문제로 환원되어 공회전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수익성 측면에서 장래가 그다지 밝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주택 담보 부채를 떠안고 이자를 내기 급급하거나 경제적 파산 이후 여전히 재기하지 못한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버블 패밀리〉의 부모님은 감독이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등록금을 내주기 어려울 것 같으니 학자금 대출을 받으라고 했다. 그리고 감독은 아직 돈을 벌지 못하지만, 그 대출금을 내년부터 상환해야 한다. 감

독은 쉽게 빚을 지라고 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기에 부모님 집을 떠나 살았지만, 대출금 상환 때문에 결국 부모님 댁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영화의 말미에서 어머니는 몇 년 전 감독의 명의로 땅을 샀다고 고백했다. “등기 권리자 마민지, 역세권 개발, 트리플 역세권이야!”. 하지만 감독은 어머니에게 질문했다. “2,000만 원으로 땅 사지 말고 내 학비나 내주지”. 하지만 어머니는 땅값은 여섯 배도 오를 수 있다고 대답한다. 영화는 감독이 자신 명의의 땅을 방문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 땅 때문에 빚을 져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다. 부모님의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 역시 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감독은 말했다.

〈모래〉의 감독 역시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거품이 가득한 은마아파트에 얽혀살고 있다고 고백한다. 어머니는 감독을 얹혀 놓고 영화감독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라고 권한다. 영화는 취미 활동으로 하라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그렇게 너는 변했는지 몰라. 내가 학교 다닐 때 돈을 많이 안 댔냐, 어쨌냐”. 감독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영화는 부모님이 드디어 은마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나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3억의 빚을 지고 이 집을 산 사람들 덕분에 감독의 아버지가 15년 전 지었던 답십리 아파트에 전세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30년 전 아버지는 모래땅 위에 건물을 세운 대가로 강남에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평생 일궈온 집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 이 집도 모래 위에 세워진 것만 같다. 나는 늘 나만의 공간을 갖는 꿈을 꾸다. 아마도 30년 전 아버지가 집을 마련하면서 꾸었던 꿈과 내 꿈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자신 명의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받아든 마민지 감독은 안도하고 있고, 은마아파트를 떠나는 강유가람 감독은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다.

2000년 이후를 살아가는 이 두 여성 감독이 부동산 소유의 욕망과 실천이 없다면 이 체제에서 또다시 배제될 것이다. 오랜 시간 그저 ‘투기부인’이라는 허수아비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투자자가 되지 않고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버블 패밀리〉와 〈모래〉를 통해 공동의 고민을 만들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영화를 단순히 부모 세대의 고단함, 과거의 곤궁의 참조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 여성 감독들이 어떻게 생존하며 차기작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미래 전망에 대한 사회적 수준의 고민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모 세대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사적 다큐멘터리를 통해 담아내려고 했던 감독들의 시도는 결국 두 여성 감독과 부모 세대가 함께 직면하게 된 ‘현재적 곤궁의 딜레마’로 끝이 나 버렸기 때문이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는 ‘복부인’으로 대표되는 투기하는 여성을 향한 혐오의 성격을 질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투자가 대중 실천으로 자리 매김한 시대에 투자를 과학화, 규범화하려는 방편으로 투기에 대한 엄격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기부인’이라는 혐오스러운 타자가 발명되고 그들에 대한 혐오가 사회적으로 축진되어온 과정을 드러내고자 했다. 나아가 여성 감독이 자신 가족의 일상을 부동산 경제라는 렌즈로 포착한 두 편의 사적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와 〈모래〉를 통해 이 영화에 등장한 가족들이 오직 부동산 투자 실천과 기획을 통해 가족 공동의 안락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던 현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가족들의 미래 기획

은 부동산 경제를 통해 중산층 만들기 정책을 도모한 정부와 자본의 노력과 맞닿아 있었다. 그러므로 ‘복부인’과 같이 여성화된 병폐적 인물형은 사실상 가족 내 여성들의 가정부인됨을 수행한 결과이자 체제 내적인 문제를 성찰 불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자본의 유일한 위기극복 노력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영화는 결국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심화된 2000년대 이후 감독 자신의 삶의 미래를 질문하도록 만들었다. 삶의 다양한 측면이 관리되고 투자 대상이 된 시대 독립영화 감독으로서 마주한 미래의 불투명성과 주택 상품화가 심화된 시대 독립의 불가능성이 두드러진다. 나아가 정부가 기획한 ‘중산층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는 감독의 부모 세대에게 스스로의 복지 비용을 구축하도록 만드는 개인화 전략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버블 패밀리〉의 부모님이 현재 직면한 곤궁은 신용을 통해 자산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이 시대, 신용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모래〉의 부모님이 현재 곤궁하다면 그것은 아마 은마아파트를 처분한 이후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경섭(2011)은 개인이나 가족의 사회재생산에 필요한 물질 자원이 생산활동이 아니라 금융수단에 의해 조달되는 “사회재생산의 금융화”, 사회재생산체에 대한 투기 행위 등의 문제를 “위험가족(risk family)” 문제라 칭하고 이를 통해 사회재생산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부모 세대의 생존을 위한 부채 부담과 본인의 생존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라는 “사회재생산의 금융화”에 의존하며 각자도생하고 있는 두 가족의 삶의 모습 역시 “사회재생산의 위기”라는 말로 전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회재생산을 어떻게 사회적 수준에서 복원할 수 있을지 질문할 때이다. 오직 개인의 과제로만 생존을 위한 투자 활동이 촉진되고, 임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개인적 재무 관리의 일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떤 경제적 대상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여성으로 인격화된

모습일 것이다. 동시대 만연한 여성혐오는 위험이 상시화된 체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가리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는 신화가 어떤 혐오적 타자를 또 다른 허수아비로 세우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 글의 처음에 제기했던 두 고위 공직자의 투기 논란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우리는 이들이 공직자 개인으로서 ‘과도한’ 투기활동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개인의 금융 의존적인 삶을 문제 삼고 사회재생산을 고민해야 할 책임을 가진 공직자들의 미래 전망, 직무 유기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개인 투자자가 ‘투기부인’이라는 여성형 병폐의 화신을 앞세워 금융의 탐욕을 사적 도덕성의 문제로 환원시키며 비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자신을 구성하는 현실의 궁색함을 용기 있게 카메라에 담은 두 여성 감독의 삶을 앞에 두고 개별화된 금융적 생존 전략을 넘어서는 사회재생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유가람(2015), “어떤 사교육 키드의 생애”, 『확률가족: 아파트키드의 가족 이야기』, 서울: 마티, 145-158쪽.
- 강이수 · 신경아(2001), 『여성과 일: 한국 여성 노동의 이해』, 파주: 동녘.
- 강준만(2006), 『강남, 낮은 대한민국의 자화상』, 서울: 인물과사상사.
- 권진경(2018), “여성 다큐에서 등장하는 감독-나의 이야기”, 『독립영화』, 제 47권, 28-37쪽.
- 그레이엄, 벤저민(2016), 『현명한 투자자』, 김수진 옮김, 파주: 국일증권경제연구소, Graham, B.(2003), *The Intelligent Investor: A Book of Practical Counsel*, New York: HarperBusiness Essentials.
- 김도균(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숙현 · 이효민(2018), “사적 다큐멘터리의 서사적 경향 및 특성”,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3권 2호, 45-86쪽.
- 김영옥(2012), “장소 만들기의 정치학과 스토리텔링: 용산 관련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5권 1호, 145-183쪽.
- 김현미(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37-64쪽.
- 박기원(1979), “복부인”, 『새가정』, 1월호, 124-129쪽.
- 박인석(2013), 『아파트 한국사회: 단지 공화국에 갇힌 도시와 일상』, 서울: 현암사.
- 박혜경(2010), “신자유주의적 주부 주체화 담론의 계보학: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6권 2호, 127-158쪽.
- 박혜영 · 박금식(2015), “산업시대의 여성: 그 많던 여공들은 모두 어디로 갔

- 는가?’, 『젠더와 문화』, 제8권 제1호, 87-123쪽.
- 손정목(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3』, 파주: 한울.
- 윌러, 로버트(2014), 『비이성적 과열』, 이강국 옮김,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Shiller, R.(2000), *Irrational Exuber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이승민(2013), “2000년대 이후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서사(구조)에서 ‘감독-나’의 기능에 관한 고찰”, 『영상예술연구』, 제23권, 71-95쪽.
- 이준영·정지영(2011), “남성과 여성의 투자위험 감수성향 차이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10), pp. 1-13.
- 장경섭(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3호, 63-90쪽.
- 장상환(2004), “해방 후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부동산투기”, 『역사비평』, 제66호, 55-78쪽.
- 조순경(1998), “경제 위기와 여성의 고용 정치”, 『한국여성학』, 제14권 2호, 5-33쪽.
- 형대조(2010),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적 다큐멘터리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 『영화연구』, 제43권, 429-453쪽.
- 황미요조(2014), “공/사의 관계를 해체하기: 한국 여성 다큐멘터리와 ‘개인적인 것’”, 『21세기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엮음, 서울: 한국독립영화협회, 140-154쪽.
- Adkin, L.(2009), “Feminism After Measure”, *Feminist Theory*, 10(3), pp. 1-17.
- Aitken, R.(2007), *Performing Capital: Toward a Cultural Economy of Popular and Global Finance*, New York: Palgrave.
- Allon, F.(2010), “Speculating on Everyday Life: The Cultural Economy of the Quoti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Inquiry*, 34(4), pp. 366-381.
- _____ (2014), “The Feminisation of Finance: Gender, Labour and the

- Limits of Inclusion”, *Australian Feminist Studies*, 29(79), pp. 12-30.
- de Goede, M.(2000), “Mastering ‘Lady Credit’”,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2(1), pp. 58-81.
- _____ (2005), *Virtue, Fortune, and Faith: A Genealogy of Fina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ortunati, L.(2007), “Immaterial Labour and Its Machinization”, *Ephemera*, 7(1), pp. 139-157.
- Humphries, J.(1995), *Gender and Economics*, Northampton: Edward Elgar Publishing.
- Langley, P.(2006), “Securitising Suburbia: The Transformation of Anglo-American Mortgage Finance”, *Competition & Change*, 10(3), pp. 283-299.
- Martin, R.(2002),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Preda, A.(2005), “The Investor as a Cultural Figure of Global Capitalism”, in *The Sociology of Financial Markets*, ed. K. Knorr-Cetina and A. Pred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41-162.

〈인터넷 자료〉

네이버(2019),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검색일: 2019.4.25).

〈시청각 자료〉

강유가람(2011), 다큐멘터리 〈모래(My Father's House)〉

마민지(2017),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Family in the Bubble)〉

〈신문기사〉

『경향신문』, 1980.2.15, “主題과약”.

- 『동아일보』, 2011.9.18, “투자와 투기의 결정적 차이점은?”
- 『이투데이』, 2017.10.11, “[이철환의 돈이야기] 투자냐 투기냐…“둘 다 필요”.
- 『이투데이』, 2017.6.29,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
- 『조선비즈』, 2018.9.16, “참여정부때 실패한 ‘부녀회 집값 담합 차단’ 이번엔 가능할까”.
- 『중앙일보』, 2019.4.25, “임명장 받은 이미선…배우자, 주식 전부 매각”.
- 『한겨레』, 2019.3.28, “김의겸 “투기 아니다” 해명…“부적절 처신” 비판 여론”.
- 『한겨레』, 2019.3.29, ““건물 매입 논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격 사퇴”.
- 『한겨레』, 2019.4.10, “이미선 ‘주식’ 청문회…“모든 거래 남편이” 해명에 질타 쏟아져”.

(논문투고일: 2019.04.30, 심사확정일: 2019.06.24, 게재확정일: 2019.06.28)

〈Abstract〉

Setting up the ‘Lady Speculation’ as a Puppet: Analysis of Two Personal Documentaries

Kim, Joohee*

In Korea, the amoral speculator is often portrayed with a woman’s face, as typified by the label ‘Lady Speculation.’ However, this study details the practice of establishing a male-centered normality for investment while pathologizing speculation as a non-normative women’s economic activity. For this purpose, two personal documentaries produced by women directors, *Family in the Bubble* and *My Father’s House*, are analyzed, showing that the ‘becoming middle class’ project in Korea has been indispensable to the practice of property speculation by family members. Although the ‘Lady Speculation’ represented a recommended gender role for women in middle-class families, such women have in fact been puppets, set up by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interests to rationalize the money market. This study therefore calls for careful consideration regarding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through an exploration of the lives of the documentaries’ two families and the women directors.

Key words: economy and women, property speculation, ‘Lady Speculation’, financialization of the household, personal documentary

*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Sogang University